**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주 부산의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라는 연락을 받고 6월 28일 입국했습니다. 이번 주에 차츰 회복되어 의식을 되찾아 산소마스크도 벗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도 알아봅니다. 어머니와 헤어질 준비와 장례식 절차를 의논했는데,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자매들과 퇴원을 의논해야 합니다. 언니가 1기 암 수술을 받은 병원과 어머니 요양병원을 오가며 시차 적응도 못하고 경황이 없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편지로 소식을 전하며, 아울러 함께 기도해 주신 동역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주위에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과 암 투병을 하는 가족들이 있는 분, 장애우가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저에게 허락된 이 모든 상황은 아픔을 지닌 다른 영혼들을 이해하며 중보하기 위한 주님의 다른 계획이라고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전할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하고 라마단이 시작되어 이웃들과 교제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바로 위층 가정과 전화번호를 주고 받으면서 화분도 맡기고 집을 부탁하고 유치원 교사인 딸과 SNS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거주증 신청서 접수와 인터뷰는 했는데 거주증은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입국했는데, 다시 사역지로 돌아갔을 때 어려운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교제하고 있는 영혼들의 근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 주세요.

H부인은 저의 상황을 위해서 회교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U부인은 딸이 단기연수 가 있는 영국에 10일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N은 9월 17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회교 가정에서 여성의 첫째 결혼 조건이 회교도 남성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S부인은 예전 집의 이웃인데 이사 이후에 청구된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답니다.

한식과 한복 강좌를 통해 만난 영혼들은 7월 수업에 함께 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오랜만이라 습기 많은 장마철과 모기는 문화충격이지만, 긴장하지않고 외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계절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내시고 기회가 되는대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 7월 7일

김에스더 선교사 드림